

# 改革主義 立場에서 본 教育觀

김 현 응

## 목 차

- |             |              |
|-------------|--------------|
| I. 서론       | V. 교육의 개념    |
| II. 개혁주의 이해 | VI. 교육목표의 설정 |
| III. 교육의 기본 | VII. 결론      |
| IV. 교육의 상대  | 참고문헌         |

## I. 서 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을 신앙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는 참 선의 사회 건설을 갈구하면서 우주의 모든 현상, 법칙, 제도 및 관계들을 말씀의 빛에서 조명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sup>1)</sup> 라는 진리를 증언하고자 한다. 이 기본적인 선언에서부터 모든 지식영성의 구조가 생겨나며 목적과 방법이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타락이후 인류역사는 하나님께 의탁하여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 중심

---

1) 롬, 11:36



## 2 · 복음과 학문 제2호

사상과 하나님없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만을 광신하는 인간중심사상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 속에서 피조세계는 주의 재림을 열렬히 고대해 왔으며 전 지식영성이 기독교의 연구와 탐구를 갈구해 왔다. 학문은 본질상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며 중성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때문에 생활 각분야에서 하나님의 궁극성을 믿는 개혁주의 신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sup>2)</sup> “너희가 너희 땅 취하기를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sup>3)</sup> 는 물음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 지식영성을 계시된 말씀에 기초하여 탐구하고 검증해 보는 작업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필요하다면 전생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라도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규명하여 체계지우는 작업을 시도해 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취급하지 못하고 극히 기본적인 요소에만 한정하여 다루었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그 근원을 종교개혁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는 그 어원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히 9:10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 $\delta \iota ο ρ θ ω$ ” 가 Reformed 또는 Reformation의 의미이다. 이 말은 “바르게 만든다(making straight)” “굽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2) 고후, 10:5

3) 수, 18:3

것을 원래의 정상적인 똑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을 내향하고 있는 말로서 “어떤 일을 올바르게 만드는 諸 상황의 교정”을 의미하며 바로 메시아시대를 묘사하고 있다.<sup>4)</sup>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현상태의 보존이나, 갑작스런 혁명, 또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그 기준과 측도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속적으로 재형성(formed again, formed over”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주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활영성에 규범으로 삼으며, 이 규범에서 벗어날 때는 언제나 개혁하려는 자세를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제하여 그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만 인간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특성이다.

역사적으로 칼빈은 모든 면에서 개혁주의 신앙의 조직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것은 그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개혁했다거나, 새로운 신학 체계를 창안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모든 실존의 규범으로서 성경을 인정하였으며, 생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 모든 사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sup>5)</sup> 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칼빈이 전에도 칼빈주의는 존재했다”는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 기원을 어거스틴, 바울, 그리스도, 이사야, 모세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경에서 연유한 사상체계라는 점에서 그 원리가 동일할 뿐 아니라, 개혁주의 운동 자체가 17c에 이르러 본래적 종교개혁 사상의 이념이 퇴색되어지기 시작하자 화란의 후룬 반 프린스트와 아브라함 카이퍼박사 영도하에 칼빈주의 사상으로 다시 되돌아 가고자 한 19c 화란 칼빈주의 운동의 부흥이었기 때문이며 그

4) W.L. Walker, “Reformation”, International Bible Encyclopedia, ed. James Orr, vol. IV (1949), 2544.

5) 고후, 10:5

## 4 · 복음과 학문 제2호

것은 곧 역사적 칼빈주의에로의 복귀운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를 하나의 사상체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냐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개혁주의가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칼빈주의와 동일시되며, 역사적 칼빈주의를 버리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 구원”이라는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기독교 사상체계를 세우려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개혁주의는 오늘날 하나의 사상체계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곧 개혁주의는 정통적 신앙에 입각한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는 바 결국 명칭만이 다를뿐 모두가 역사적 칼빈주의를 지칭한다<sup>6)</sup>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혁주의 사상과 칼빈주의가 각각의 이원적인 독립된 양상으로 존재하여 그 둘이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으로 기록된 말씀의 가장 참되기도 가장 이해력 있는 해석임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는 인간의 모든 생활영성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역동적인 운동이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칼빈주의의 “멧세지”는 반드시 모든 시대마다 새로이 해석되어야 한다.<sup>7)</sup> 여기에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라는 의의가 존재한다. 이제 이와같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논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사상체계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제 원리를 살펴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입장이 취하고 있는 기본원리와 성경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칼빈주의의 기본원리가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자간에 많은 오해

6)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 영음사, 1972), pp 59-60. 그리고 오병세, 정홍권, “宣敎的 側面에서 본 改革主義神學”, 고려신학대학 논문집 V (1977, 4), p.18.

7) Simon Kistemaker, *Calvinism-Its History, Principles and perspectives*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66), p.7.

가 되고도 있으나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을 그 기본원리로 보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카이퍼, 바빙크, 위펠드는 물론 Simon Kistemaker도 저서 칼빈주의에서 칼빈주의의 기본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으며, Clarence Bouma, H.Henry Meeter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최고의 입법자이시며, 자연계와 도덕계, 진리, 과학, 예술등 모든 생활권에 있어서 자존하셔서 모든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신다는 뜻이다.<sup>8)</sup>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보는 이러한 칼빈주의자의 사상체계와 생활에는 필연적으로 성경이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타락전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한가지 계시 곧 자연만을 주었다.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통일과 조화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마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았으며<sup>9)</sup> 인간 역시 참 지식을 상실하여 흐려진 마음과 변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주를 더이상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은 다른 하나의 특별 계시를 주셨으니 그것이 곧 성경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자연을 해석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를 H. Henry Meeter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두가지 계시를 주시고 그것들을 연구 하라고 하였으니 결국은 성경이 신자의 인생관 전체에 궁극적인 기초가 된다. 그 이유는 자연과 인생의 생활을 적당히 설명하기 위하여는 성경적인

---

8) 이근삼, op.cit., pp.21-24.

9) 창, 3:17

## 6 · 복음과 학문 제2호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 자연을 해석하는 이상의 역할을 하니, 그 이유는 그것이 죄인의 구원에 대한 특별계시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또한 성경이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전서식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 인간과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제 사실들을 일관된 체계로 질서지우며 통일적인 해석을 가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서라는 의미이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개혁주의는 모든 학문의 기초와 출발점을 성경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학문연구의 입장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체계를 단호히 거부하며 도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틸은 듀이와 플라톤에 도전할 수 있는 정통은 개혁주의 신앙외에는 없다고 공언했다.<sup>10)</sup> 왜냐하면 모든 인간적 서술에 대한 최종적 관계점으로써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곳은 개혁주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 인간을 위치케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이와같은 개혁주의의 의미와 원리적인 입장에서 교육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Ⅲ. 교육의 기본

교육이론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자신의 교육체계를 건설할 기초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곧 어떤 기초위에서 이론과 실재를 전개시켜 나가느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

10) Cornelius Van Til, *Essays o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1), p.79.

현대교육은 이 점에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의 기초가 아니라 확고한 하나의 기초위에 교육을 건설해야 하겠는데도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적인 탐구의 과정만을 반복하여 지성의 방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교육학이 본질상 규범과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과학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sup>11)</sup>고 보이왔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규범이 동일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왔으며, 따라서 교육의 본질문제와 교육의 당위성의 문제에는 어떠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이런 이유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교육의 장에는 새로운 이론의 제시에 의한 개혁이 요청되어 왔고 또 꾸준히 개혁을 거듭해 왔으나 결국은 혼란과 갈등만이 더해졌을 뿐 교육은 끝내 방향을 잃고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는 목전의 해결에만 급급해 왔던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교육학자들이 역사적인 기초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또, 철학적인 기초, 심리학적 기초, 사회학적 기초, 때로는 이들 모두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역사적 기초가 확고한 규범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철학적 기초 역시 다양한 철학체계 가운데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기초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점에서 심리학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 심리학은 경험주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학적 기초 역시 절대적인 행위규범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구가 도덕의 바탕으로 되고 있어 교육의 체계를 건설할 수 있는 규범적인 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Inter-disciplinary approach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전체

---

11) JanWaternrk, Basic Concept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Pub. Co., 1954),

## 8 · 복음과 학문 제2호

를 볼 수 없는 연구행위는 분열과 부분의 심도만 가중해갈 뿐 의도하는 바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초가 동일하지 못하며 방법과 결과가 상이한 학문사이의 통합적인 접근은 결국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이다.

또한 규범을 제공해 주는 어떤 기초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규범들이 나오게 된 정신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신론자들의 규범들이 이신론자의 규범과 가치가 동일하며 또 유신론자의 제 규범과 가치 및 의의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Veda에서 나온 규범들이 성경에서 나온 규범들과 그 가치가 동일한가? 석가나 공자, 스탈린에 의하여 규정된 규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범들과 그 가치와 의의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다수득표로서 결정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제와 전제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비과학적인 활동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것은 신앙과 종교적 기능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논리적 사고활동이다.<sup>12)</sup> 과학자든 철학자든 누구나 일정한 가정없이 그들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생의 모든 영성에서 지침이 된다고 믿으며 창조물의 인식은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13)</sup>고 보는 개혁주의 입장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정확무오한 성경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갈 것을 주장한다. 역사와 철학, 사회학, 심리학이 교육학에 보조과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확고한 기준과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외에는 그 어느 것

---

12) Ibid, p.21

13) Henry R. Van Til, op.cit., p.21



도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시편기자가 말한 바 하나님 중심사상인 것이다.

교육이 진실로 기독교적이라면 반드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비록 철학이 교육의 명료화를 도우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그 철학도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sup>14)</sup>

이상의 주장들은 교육학의 보조과학까지도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참다운 기독교 교육체계를 건축하려고 하면 인문주의 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어떤 기본적인 신조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기초하여 교육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구조에 맞지 않는 과학의 도움을 입을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육학이라는 집을 건축하기에 앞서 어떤 재료를 받아 드린다면 이 재료는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그 체계에 맞는 그 체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sup>15)</sup>

따라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교육철학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철학적 해석이 없는 신학문제의 나열은 기독교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너무 큰 해석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sup>16)</sup>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George F. Kneller 의 말을 빌면 철학이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교육철학이 된다. 일반철학이 실재를 가장 일반적이고 체계적 방법에서 설명함으로써 실재를 전체로서 이해코자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

14) H.Van Dyken, "Covenantally Ours", Viewpoint-Five Essays on Christian Education (Rexdale Ont : The Reformed Fellowship of Canada, 1974), pp.6-7.

15) Waterink, op.cit., p.18.

16) 은준관, "교육신학의 가능성 -Theodore Brameld와 現代神學의 思想을 中心한 試案-"신학사상 제6집 (1974년, 가을), p.602.

## 10 · 복음과 학문 제2호

육철학은 교육을 교육의 전체성에서 이해코자 하며 교육의 목적이나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교육을 일반적 개념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참 교육인 기독교 교육은 일반교육철학의 해석을 기다리며 그것이 【제 삼의 양식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sup>17)</sup>고 결코 환영하지 아니한다. 기존하는 여러가지 교육철학체계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이론들이 전혀 무가치하며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에 관계없이 일반은총의 영성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확고한 말씀의 측도에 의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독교교육과 대화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 두는 입장은 개혁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Dewey의 교육철학체계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구조를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해 일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1970년대에 들면서 인간과 사회문제해결에 다시금 Dewey적인 해결방법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할 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역사적 기독교 대신 현대과학의 종교를 대치하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개념, 인간의 타락, 선택적 구원등의 교리를 경험의 계속성의 원리에 대한 폭동으로 보고있다. Dewey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경험의 산물이며<sup>18)</sup>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공동신앙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Theodore Brameld는 문화와 교육과의 관계를 문화인류학적 견지에서 논술할 때 규범적 측면에서 인간의 가치, 이상등으로 그의 이론을 개진하면서 도덕 및 종교적인 측면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혔으며<sup>19)</sup> 힘으로서의 교육에

17) 은준관, op.cit., p.601

18) John Dewey, *A Common Faith* (New Heaven, Conneticut : Yale University Press, 1934), pp.1-28.

19) Theodore Brameld, *Philosophy of Education for the Experimental Human Community* (A lecture delivered at Meadville Theological School, April, 1962), p.196.

서도 밝히고 있다. 종교에 대한 Brameld의 견해를 검토해보자. 진보주의와 재건주의의 도덕관 및 종교관에는 동일하게 Humanism이 그 기초로 되어 있다. 단지 그 Humanism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만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즉 진보주의가 과학적 Humanism라 불리워지는 대신에 재건주의는 실존적이라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 자기인생의 과정을 지배할 수 있는 영도자라고 믿고 있으며 인간 스스로가 입법자라고 주장한다. Brameld의 다음 말을 보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배하는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가장 알기 쉽게 표명한 이름은 다름아닌 휴머니즘의 개념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과학적 휴머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들은 인간성이란 잠시도 쉬지 않고 스스로를 만들어 내고, 또 재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인간성의 형성이라든지 그 재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그 자신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재건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스스로 선한 생활방식을 쌓아 올리하고자 원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이 주로 자신의 노력과 포부, 자신의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위대한 종교가 가져온 제 법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 자신이 오랜 세월에 걸친 즐기찬 노력끝에 쌓아올린 제반 문화적인 경험의 산물이라고 본다.<sup>20)</sup>

이와같은 철학적 입장은 기독교가 절대종교임을 부정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거부한다. 기독교교육은 이와같은 일반교육철학에서 해결의 실마리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초위에서 꾸준히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

20) Brameld, Education as Powe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p.84.

## 12 · 복음과 학문 제2호

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 IV. 교육의 상대

교육의 대상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인간과 또는 아동관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인간은 무엇이며, 그 본성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인류역사상 꾸준히 모색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심리학은 물론이며 철학에 있어서도 이의 해명을 위한 사유와 논리적 전개는 계속되어 왔으며 이것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변화가능성 곧 학습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이 교육의 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의 체계를 결정하는 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sup>21)</sup> 시편기자의 이 질문은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질문하고 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질문을 심각하게 자문해 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교육의 과정에 종사하는 자는 마치 가옥을 개조하려는 목수가 그 집의 구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관심도 없이 달려드는 것과 같 어리석은 행동이다. 교육의 과정은 바로 이 아동관에 의하여 제약되므로 교육과정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까지 이와같은 문제는 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밝혀져 왔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입장에서 논구되어져 왔다.

---

21) 시, 84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성악설이라고 통칭되어 왔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비시켜 순자의 성악설이 널리 알려져 왔으며, 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입장을 이 범주속에 넣어 생각해 왔다. 기독교의 타락의 개념 특히 인간전적부패라는 칼빈의 교리를 이러한 입장에 속하는 전형적인 사상으로 주장해왔다. 곧,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악한 본성을 유전받아 출생하게 된다는 원죄의식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은 16c의 칼빈에게 이르러 극단적인 성악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sup>22)</sup>

둘째는, 앞서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이론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는 성선설의 입장이다. Rousseau는 자신의 교육소설 에밀 제일장 첫머리에서 “신은 만물을 선하게 만들었으나, 인간이 이에 간섭하여 그들이 악하게 되어 버렸다”<sup>23)</sup>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성악설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동양에서는 맹자<sup>24)</sup>가 고자의 性無善無不善論의 주장에 대해 성선설을 제창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仁·義·禮·智 의 四端이 들어 있음을 설명하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누구나 다 구출해 줄 것이라는 測隱之心の 발동에서 오는 자연적인 것을 들어 입증하려 했다.

셋째는, 인간의 본성을 선도 악도 아닌 한낱 유동체로 보는 환경설 혹은 백지설의 입장이다. 이 입장의 대표자로 손 꼽히는 John Locke는 1690년에 발표한 논문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인간의 마음은 tabula rasa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tabula rasa라는 말은 나전어로 백지라는

22) 정원식, 인간과 교육 신교육학전서, 제3권(서울 : 배영사, 1969), pp.15-16.

23) Jean Jacques Rousseau, Emile, trans. Foxley (New York : E.P.Dutton Co. Inc., 1957), pp.5-6

24) 안炳周外 譯解, 新譯四書 Ⅲ, 孟子 (서울 : 玄岩社, 1966), pp.253-254.

## 14 · 복음과 학문 제2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출생시는 백지상태로 환경의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만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맹자의 論敵 고자가 사람의 본성은 와 같은 것이고, 義는 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인의를 만드는 것은 마치 를 가지고 배권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곧, 사람의 본성은 善도 不善도 아닌 도덕 이전의 자연적인 것이며 후천적인 작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도덕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neutral infants는 존재하지만 neutral adults는 존재할 수 없다.<sup>25)</sup> 이러한 사상은 20c 행동주의 심리학과 영국의 연상주의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의 고도한 발달로 많은 학자들은 이상의 각각의 입장들을 과학이전의 사상으로 묶어버리고 심리화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식의 사고전개를 과학이전의 사상이라고 단순히 말해 버릴 수는 없다.

교육의 기초에서도 논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은 모두 기본적인 명제나 바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하나의 논리적 사고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엄연히 과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인간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나간 다 해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다고 개혁주의는 단호히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De Jong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다. 즉, 개조해야 할 가옥에 관한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가옥이 비둘기집이나, 닭장, 개집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수 역시 어리석은 목수이다. 물론 그러한

---

25) Peter P. Person,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76), p.49

것 역시 이 집 전체에 다 포함되는 요소이기는 하나 값어치가 적으며, 또한 그것으로 집을 판단한다면, 결국은 잘못 인도되고 만다<sup>26)</sup>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초하여 아동의 본질적인 모습을 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완전한 상태 ②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③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3가지 기본적인 구조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이와같은 전체성에서 파악하기를 요구하며, 특별히 지음받은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 보기를 요구한다.

인간의 원래의 모습 곧, 완전한 상태에 대해서는, 의존적, 善(義, 眞理, 거룩), 이성적, 사회적, 자유, 유기적 단일성, 평등의 속성등 여러가지 설명을 가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도덕적, 종교적 존재로 지음 받은 아동”이라<sup>27)</sup>는 말속에서 그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가 죄로 타락한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바, 그것은 곧 협의적인 의미에서 거룩함, 의, 참지식을 상실했으나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교육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아직 특수은총을 전제로 일반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해 주셨으며 각자의 재능대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풍부하게 남겨주셨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안에서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이와같은 전체적인 장면속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히 인간의 본성을 논할 때는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규정지워 살펴야한다.

26) Norman De Jong, *Education in the Truth*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9),

27) De Jong, op.cit., p.71.

## 16 · 복음과 학문 제2호

곧 그 선이 지고선을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Rousseau나 맹자 등의 성선설의 입장은 인간의 타락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성악설, 백지설 역시 원상태의 인간과 현상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다. 개혁주의 입장은 일반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범주지워 버리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선인 동시에 악이며 또한 그 이상이다. 개혁주의 입장은 인간을, 아동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 전체적인 맥락가운데서 이해하기를 요구하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과정을 전개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 V. 교육의 개념

교육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했고 인간문화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유형 무형의 교육작용이 존재해 왔으며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 교육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각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주장을 달리해 왔다. 사회적 견지에서 Pestalozzi는 교육을 사회개혁의 지속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으며, Kant는 인격적, 도덕적 입장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심리적 입장에서 Rousseau는 교육을 인간의 自發自展을 위한 조성작용으로, Dewey는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으로 생활경험의 견지에서 논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교육이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인간형성의 작용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Philip H. Phenix같은 교육철학자는 교육을, 인간이 인간의 발달을 의도적으로 지도하는 과정<sup>28)</sup>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이 의도적인 인간형성의 작용이라는 의미에서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항상 전제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은 교육대상에게 의도적인 작용을 가하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이 내향되어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내부로부터의 전개에 의해서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형성이나에 대해서는 敎育史상 계속적인 대립을 보여 왔다.

교육의 어원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Latin적인 의미는 인출, 도출, 즉 이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 소질을 개발시켜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며, 독일어 Erziehung, 화란어 Opvoeding 등은 모두 미성숙에서 성숙의 상태로 양육한다는 뜻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 말이다.

Dewey는 이러한 문제를 경험과 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기했다.

교육이론의 역사는, 교육을 내부로부터의 발전이라는 사상과 외부로부터의 형성이라는 사상과 대립, 또는 교육은 천부적 자질에 기초를 둘 것이라는 생각과 교육은 천부적 성향을 어기고, 그 자리에 외부적 압력에 의하여 얻어진 습관을 대치하는 과정이라는 생각과의 대립으로 우리의 주목을 끈다.<sup>28)</sup>

교육의 개념을 자의 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박봉목교수는 Greece적인 Paidagogos에서 나온 Pedagogy와 Latin문화적 배경을 가진 Educo란 말에서 나온 Education은 그 교육이 의미하는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 “Education from without” 와 “Education from within”과 같은 거의 반대적인 개념이 서구교육사의 이대조류를 형성해 왔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교육상의 일대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8) Philip H. Phenix,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p.13.

29) John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 1972), p.17.

## 18 · 복음과 학문 제2호

Dewey에 의하면 이와같은 대립은 오늘날 교육실제에서 전통적 교육과 진보적 교육과의 상대라는 형식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이라는 것은 Education from within이나, Education from without나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후자속에서 전자가 포함되어지는 통합적인 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을 극단적으로 단순히 개인의 내적요소를 인출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의의가 묵과되고 그렇다고, 외부로부터의 형성하면 아동에게 부여되어있는 제 잠재력의 개발을 등한시하게 된다. 교육자는 규범을 따라 의도하는 바 목적으로 아동을 인도해 가야 하며, 동시에 “아동에게 있는 것”을 개발시켜야 한다.<sup>30)</sup>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동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을 교육자가 아동에게 주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31)</sup>

이와같은 통합적이며 동시적인 관계속에 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Dewey가 말하는 바와 같은 경험의 繼續一元化의 원리에 의한 양자의 조화통일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호 모순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조건이 되는 관계이다. Cornelius Jaarsma나 Mark Fakkema 등은 교육을 “bringing up”의 과정으로 보며,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에 합당한 의미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Education from within이나 Education from without의 대립관계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은 상보적인 관계에서 주장되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이 이해될 때 교육은 앞서 교육의 대상에서 살피본

30) Waterink, op cit, p.28.

31) Ibid., p.44.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도덕적, 종교적 존재로 지음 받았으나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였으며,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이 열려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망있는 과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항상 “계약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상태에로의 지향이다.

De Jong은 이러한 교육만을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기독교적이 아닌 어떠한 교육도 교육이 아니다”<sup>32)</sup>고 말한다. 때문에 그는 Henry Zylstra등과 같이 education이라는 말앞에 Christian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waterink에 있어서는 그러한 교육도 그 자체교육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hristian이라는 형용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되는 사상은 모두가 교육이란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된 대상의 전인적인 개발로 보고있다는 점이며, 그것은 곧,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질상 종교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아동을 보는 개혁주의 입장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교육은 곧 De Jong 이 정의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동료인간, 인간과 물리적 우주사이의 참된 이해와 관계의 재창조 및 발달<sup>33)</sup>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VI. 교육목표

모든 인간은 그의 생활을 지시하고 행동을 형성해 주는 목표와 원리를 필요로 한다. 인간의 모든 의식적 행동속에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32) Cornelius Jaarsma, “A Calvinistic Progra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God-Centered Living*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51), p.90.

33) Mark Fakkema, *Christian Philosoph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Book III, (Chicago : 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p.94.

## 20 · 복음과 학문 제2호

있는 법이다.

곧 인간의 모든 활동은 명백히 목적추구에 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목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에 기본방향을 정하여 주며 그 활동의 근거를 밝혀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목적이란 교육자가 주의를 기울여 인간발달을 지도해 나가는 방향,<sup>34)</sup> 즉, 교육활동 전반에 기본방향을 정하여 주는 지도적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의 근거를 밝혀주는 초점이 되는 것이다. 교육의 관심은 항상 이러한 이상의 설정에 있으며 목적이나 목표의 설정에 있다. 목적이 견고하지 못한 교육자는 결코 교육이라는 실천과정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이다.<sup>35)</sup> 목적이 없는 교육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특징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구차한 교육일 수 밖에 없다.<sup>36)</sup>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아무렇게나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곧 목적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교육이 인간발달의 지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도방향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며 어느 하나의 지도방향을 다른 것 대신에 선택하는 문제는 바로 가치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철학은 교육의 목적을 정립함에 있어서 가치관에 대한 병렬적인 관조 곧, 모든 사상적 측면에서 가치관에 대한 사변적인 논증과 동시에 이러한 병렬적인 관조의외에 사상과 사실의 시대적, 종단적 관조 또한 피할 수 없는 동시의 자료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목적은 당연히 철학관의 다양성과 결부되며, 교육에 대한 일

34) Phenix, op.cit., p.549.

35) Waterink op.cit., p.34.

36) C.B Eavey,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 Teachers (Grand Rapids, Michigan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8), p.46.

반적인 요청의 다양성과 연결된다.

그러나 성경을 모든 생활의 규범과 원천으로 믿고 있는 개혁주의는 교육 목적설정의 배경이 되는 가치를 탐구함에 있어서 일반교육철학이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개혁주의는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가치를 찾는다. 가치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성경적 교리가 잘 요약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트 요리문답은 인간의 주요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 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John Calvin의 제네바 요리문답에도 첫번째 질문과 그 해답은 거의 동일하다. 즉, “인간의 제일된 목적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고 동일하게 가르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역시 웨스트민스트나 제네바 요리문답과 일치되고 있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인간의 모든 생활영성에 있어서의 지침으로 믿고 있는 개혁주의 기반에서는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삶의 의의를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목적있게 창조된 인간의 역사적 과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와같은 목적인 피조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상 완전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 한다는 이 종교적 가치야말로 원상태에로의 핵심적인 지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이 종교적 또는 영적가치를 다른 제가치 곧, 편의상 Phenix<sup>37)</sup>가 분류한 가치관계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물질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리 가치, 도덕적 가치, 심미적 가치등과 같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등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7) Phenix, op.cit., p.55.

## 22 · 복음과 학문 제2호

개혁주의는 종교적 가치를 다른 제 가치가 이에 종속되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본다. 이 종교적 가치속에서만 다른 제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체계에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그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의 전체하에서 교육자는 교육실체에 알맞는 이치적인 목적 또는 목표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와같은 과업은 신학이나 심리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 오직 교육학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다.<sup>38)</sup>

## VII. 결 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활영성의 지침으로 믿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결과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입장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 기초를 성경에 두고 있으며, 성경의 빛 아래서 교육의 모든 사실, 현상, 행위들을 이해하고 그 전체성으로 질서지우고자 한다.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원리적으로 올바른 개혁주의 교육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편으로 일반교육이론과의 대화를 모색하며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노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확한 검증의 과정이

38) 과학적으로 합당한 교육목적의 설정을 교육학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Waternkn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서 설명한다.

첫째는, 교육학만이 아동의 본성과 그 교육적 잠재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둘째는, 교육학만이 교육자와 환경전체가 아동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고

셋째는, 교육학만이 아동에게 적합한 종교적, 도덕적 이상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천적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인 요인이다. 현대심리학이 이 문제에 지속적인 동찰과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아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 교육대상은 항상 창조-타락-회복이라는 계약의 구조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교육의 신학적인 기초와 아동관을 토대로 해볼 때 교육의 개념은 인간이 인간의 발달을 의도적으로 지도하는 과정 또는 바람직한 인간형성등으로서 막연하게 이해되어져서는 안된다. 교육은 반드시 “원상태로의 지향” 또는 “관계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정의지워져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과 항상 관계지워져야 하며, 교육의 실천적 장에서도 이러한 목적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차원적인 목적 또는 목표들이 아동의 제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수립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육을 체계지워 보려는 徴徴한 첫 시도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극히 기본적인 부분적인 요소에만 극한하여 고찰되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정확무오한 성경을 토대로 그 방법과 내용, 목적, 결론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교육의 영성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영역에서도 오직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에 완전 의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 학문의 재정적 과업이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과업이며,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참된 교육관의 확립과 실천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 참고 문헌 □

- 김재은. 기독교교육론.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년
- 김득용. 기독교교육원론.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76년
- 안병주. 孟子 新譯四書 III. 서울 : 현암사. 1966년
- 오병세. “칼빈주의 교육관” 김남식(편). 칼비주의연구 서울 : 백합출판사. 1972년
- 은준관. “교육신학의 가능성” - Theodore Brameld와 현대신학의 사상을 중심한 시  
안신학사상 제 6집
- 정원식. 인간과 교육 신교육학전서. 제 3권 서울 : 배영사. 1969년
- 정종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 총신대출판사. 1983년
- Dewolf L. Harold : 신앙과 교육. 조항록역 : 기독교교육협회. 1980년
- Meeter. H. Henry : 칼빈주의의 기본이념, 김진홍역. 서울 :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59
- Smart. S. D :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역 : 기독교교육협회. 1982년
- Schereyer. G.M : 신학과 기독교교육. 채위역 : 기독교교육협회. 1982년
- Harper. N. E : 현대기독교교육 . 이승구역 : 정음사. 1984년
- Westerhoff. John. H : 신앙교육. 정응섭역.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년
- Brameld, Theodore, Philosophy of Education for the Experimental Human  
Community-A lecture delivered at Meadville Theological School, April, 1962,  
, Education as Power ,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De Jong, Norman, Education in the Truth,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9.
- Dewey, John, A Common Faith, New He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34.  
,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72.
- Eavey, C. B., Principles of Teaching for Christian Teachers, Grand Rapids :  
Wondervan Publishing House, 1968.
- Fakkema , Mark, Christian Philosoph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BookIII,  
Chicago ; National





김 현 응 /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교육관 · 25

Kistemaker, Simonm Calvinism-Its History, Principles and perspective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6.

Kneller, George F.,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if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2.

Person, peter P.,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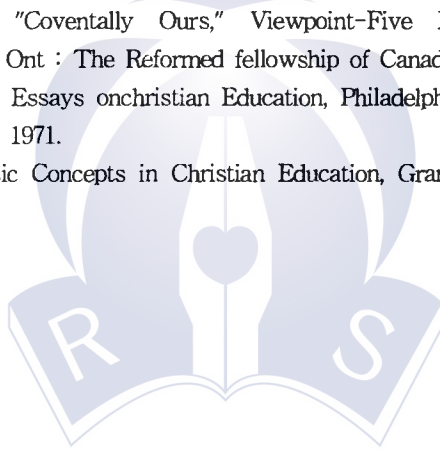
Phenix, Philip. H.,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Rousseau, J. J., Emile, trans, Foxley, New York : E.P. Dutton Co., 1957.

Van Dyken, H., "Coventally Ours," Viewpoint-Five Essays on Christian Education, Rexdale Ont : The Reformed fellowship of Canada, 1974.

Van Til, Cornelius, Essays on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1.

Waterink, Jan, Basic Concept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 Eerdmans Pub. Co., 1954.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